

## 예수 부활 대축일

제1독서 : 사도 10, 34a, 37-43

제2독서 : 골로 3, 1-4

복 음 : 요한 20, 1-9

# 술정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 3, 4).

## 예수 부활

**빛이**

일어선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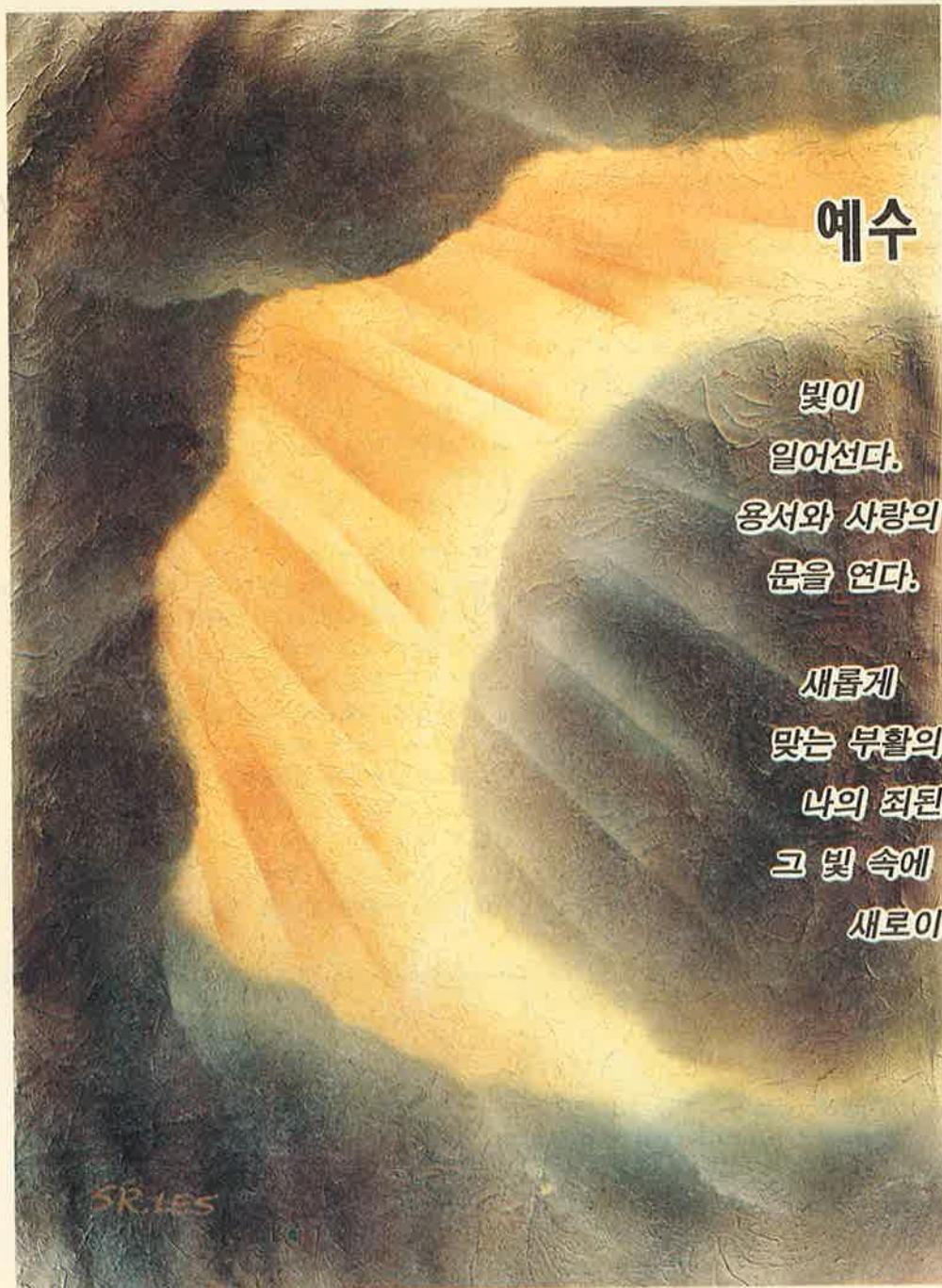
**새롭게**

맞는 부활의 빛

나의 죄된 삶이

그 빛 속에

새로이 태어난다.



# 아직도 봄은 멀었는가

한상갑(바오로)

- \*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게다.
-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 미제와 야합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하고, 패트리어트 등 장비를 끌어들이고, 제재 운운하며 대결을 감행하면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다.
- 핵문제 우선해결 입장에서 특사교환을 실행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건 대화 포기선언, 특사교환 포기선언, 전면대결선언, 전쟁선언이다. 불은 불로 다스린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피하지는 않을 준비가 돼 있다. 여기에서 서울이 멀지 않다. 송 선생도 살아남지 못할거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
-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 지금 판단 잘해야 한다. 우리 같은 동족이…(3월 19일 판문점에서).

## \* 북한 도발 땐 통일의 기회로

북한이 서북 5개 도시 또는 기타 특정지역에 도발했을 경우 강력한 응징 보복을 가하고 도발 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의 기회로 연계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병태 국방부장관).

북한의 핵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법률적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유엔현장에 대한 난폭한 위반, 이처럼 부당한 압력은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23일자 중앙통신).

평양은 온통 전쟁 분위기로 살벌, 외국인이 투숙하는 호텔까지 통화관제 실시로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칠 흑의 살풍경(23일자 북경의 한 소식통).

## \*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어쩌다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연유가 무엇이었건 듣기에 유쾌한 말은 아니다. 듣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말이어서 심란함을 떨쳐버리기 또한 어렵다. 그런데도 온갖 정세에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증권시장이 조용한 것을 본다면 그리 신경쓸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예정된 이웃 나라 방문에 나서는 것을 보아서도 크게 동요할 일은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고간 말마디들이 너무나 원색적이어서 섬찟지근하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길은 이렇게도 멀고 험난한가! 부모 형제를 지척에 두고도 40여년의 긴 세월을 이렇게 애태워야 하는가! 43년 전 ‘징 치고 피리 불며’ 남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오랑캐라 부르며 적대시하던 중공, 그곳에의 여행도 자유로워지는 판이다. 그런데 어째서 같은 동포끼리는 그토록 살벌한 말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가!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 함을 대화라 한다. 그렇다고 저 하고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내뱉는 것이 진정한 대화일 수는 없다. 제 말만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친구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다. 물론 남북대화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얹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판에 진솔한 남북대화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인가?

## \* 그리고 또 하나

상문고등학교 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난 뒤 전국적으로 53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6개 고등학교를 감사한다고 한다.

인구마저 점점 줄어드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고장이 서울(5개 고교)보다도 감사대상이 더 많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적인 색채가 짙게 남아 있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없어져야 할 병폐다. 이런 구석이 없어질 때, 우리 모두 부활의 길목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gt;

## 우리의 부활절

삼천생(三川生)

### \* 제 0일

우리 교구장 이병호 주교께서는 1월 29일자 교구공문(제 94-8호)으로 삼천동 본당의 초대 주임에 김진룡(베네딕도) 신부를 임명하셨다. 이로써 교구 내 61개 본당 가운데 제일 막내인 삼천동 본당이 탄생되었다.

### \* 제 1일(2월 19일)

오늘은 본당신부님이 부임하시는 날이다. 새 공동체는 세 본당(평화동·효자동·효자우전)의 신자들로 구성되었다. 서로가 서먹서먹한지 신부님을 맞는 준비가 매끄러운 맛은 덜한 듯이 보인다. 그래도 몇몇 신자들이 미리 나와서 의자를 나르고 간이청소에 다준비까지 바쁘게 움직였다.

오후 4시, 모시려 간 신자대표도 없었던지라 신부님이 혼자서 성당 정문에 들어서신다. 신부님은 환영나온 신자들과 일일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다.

신부님은 임시로 꾸민 제대에 작은 십자가상을 모시고 첫기도를 이끄셨다. 평화동 이재후 신부님께서는 축하인사를 해주셨다. 떡과 꿀, 따뜻한 차가 있어서인지 우리들의 첫만남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 \* 첫주일(2월 20일)

오전 10시, 삼천동 본당의 첫미사가 봉헌되었다. 신자들에게 첫미사를 알리는 광고 포스터를 아파트 게시판에 미리 붙여 두었다. 그래서인지 자리가 다찼다. 2백 개의 제병을 봉헌했다. 매일미사책을 찾는 신자들이 있어 이웃 본당에서 빌려다 팔았다. 새 살림제미가 이런건가?

조립식 건물이지만 얼마 동안은 편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씨 주신 주교님과 여러 어른들께 고마운 마음이 크다.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큰길에서 성당에 들어올 문이 없는 점이다. 좁은길로 생생 달리는 차들이 마치 흥기같아서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안전이 염려스럽다.

### \* 둘째주일(2월 27일)

주일미사를 네 대 봉헌하기로 했다. 성당의 위치가 집들과 멀어서인지 토요일 저녁, 주일 새벽, 주일 저녁에는 미사 참례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다. 공식미사에만 몰려서 220개의 제병을 봉헌했다. 지난 월요일에는 첫번째 새벽미사가 있었는데 전기불이 나가는 바람에 제대에는 손전등을 비추고, 신자들은 촛불로 어둠을 밝히며 미사를 봉헌했다. 성당이 아직 덜 말



라서 누전이 된 모양인데, 그렇긴 해도 추억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효자동 김치삼 신부님과 송영진 신부님, 사목회 임원들이 우리를 격려해주시는 자리를 만드셨다. 효자우전의 김순태 신부님과 사목회 임원들도 방문하셨다. 어린 아우에게 새살림을 떠어주는 심정같아서인지 세 본당 모두가 정성껏 성금을 챙겨 주셨다.

### \* 셋째주일(3월 6일)

역시 공식미사다. 제병은 240개, 이러다가 성당 안의 칸막이를 뜯자는 소리가 금방일듯 싶기만 하다. 열렬한 지휘자가 있고 올캔이 있으니 내일부터는 성가연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신부님을 도와주실 고모님이 오셨다. 혼자 끊여자시는 신부님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후에는 주교님이 방문하셨다. 광주신학교에서 직수여식을 침전하시고 오시다가 들리신 것이다.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으시고 둘러보셨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큰길가로 문을 내는 소망도 잊지 않고 말씀드렸다.

### \* 우리의 영원한 내일

남자들이 적어서 흄이기는 해도 성가연습이 매일매일 계속이고, 레지도 마리애 뽀레시디움도 15팀을 조직하기로 기틀을 짰다. 구역방문도 대강 끝냈고 부활맞이 화해의 고백성사도 계속되고 있다. 본당신부님은 빗속의 서울행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성물 구입에 나섰는데, 너무나 값이 비싸서 적어가신 목록을 다챙기지 못하고 오셨다. 할 일도 많고 잘 길도 바쁘다.

부활성야 미사가 끝나면 국수잔치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을 모시고서.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1994년 부활절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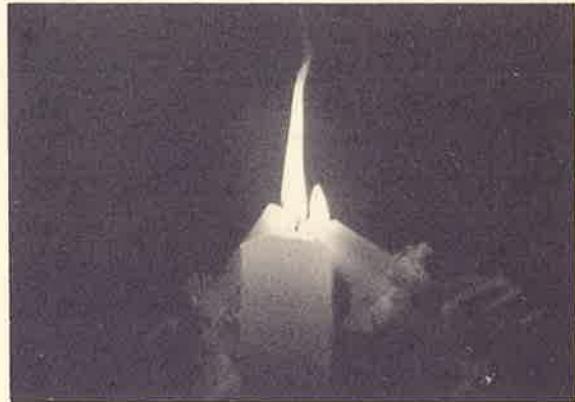
# 부활 대축일을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에페 5,14)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죽은 듯 잠자던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과 함께 우리는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며 베풀목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1고린 15,14)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로마 8,11)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얻은 것이 아니고 달릴 길을 다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른 체 낙담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과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루가복음 24장에 따르면,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흔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십자가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어 실제로는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죄악으로 크게 상처받고 있는 자기 본성의 근본적 나약성, 인간적 가난, 그 위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한계와 좌절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개인적 수준에서 만나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데 따라 그것은 우리를 절망과 죽음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던 길을 따라 같은 정신으로 그것을 이겨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권력과 영광을 추구세우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따라 자신을 통제하고 이겨 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 선우관광**  
해외여행, 여권·비자·유학,  
신혼여행, 성지순례, 항공권  
이 종 길(요한)  
이 희 준(요한비안네)  
전주 상업은행 옆  
☎ (0652) 87-9797  
          (0653) 855-4302

**특별 우대**  
**동서가구 서부 대리점**  
이 건 무(요한)  
효자동 전북은행 앞  
☎ 224-8280~1  
          222-8384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르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퐁소)  
    ☎ 88-7717~8

매일 주의 말씀 듣는 생활  
공동번역 입체 낭송 성경  
KBS·MBC 성우 100여명 출연,  
획제작 10년, 제작비 5억, 크리스챤 신  
앙생활의 필수품, 하루 한개 1개월  
(신약 27권), 1년(신구약 3번)  
손 기 영(안드레아)  
☎ (0681) 32-3337

# 맞이하여

참된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첫 아담은 자신의 실제 처지보다 더 올라서려 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렀는데 반하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본래 지위마저 버리고 인간의 약함,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도로 무력한 처지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벌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1고린 1,23)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어질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의 힘을 실제로 경험한 신앙인은 바오로 사도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빙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2고린 12,9-10)

친애하는 교령 자매 여러분,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우리 주변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밝혀주어야 할 어두움이 너무나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심하게 파괴되어 물마저 안심하고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이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하게 되어 사소한 동기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예사로 벌어집니다. 한해에도 수백만의 태아가 세상의 빛도 못본 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개방화의 물결 앞에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에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사태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으로 구원된”(로마 8,24) 우리가 세상에 부활의 빛을 전할 때 세상의 얼굴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며 버팀목입니다.”

요십이 (1075)  
김병호



##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목상회

사회 및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30세 미만의 젊은 남녀 80명  
 • 때 : 5.4 오후 6시~5.8 오후 5시  
 • 곳 : 과천 성모영보수녀원  
 • 참가비 : 60,000원(신청시 20,000원~ 은행지로 3010738 마우석)  
 • 신청 : ☎(02)986-1361, 989-4954

## 골룸반회 평신도 선교사 모집

25세 전후로 영세한 지 3년 이상된 자로 봉사활동의 경험이 많고, 공동 생활에 문제가 없는자(파견 : 95년초 필리핀)  
 • 때 : 4월 10일(일) 오후 1시30분  
 • 곳 : 서울 골룸반 외방선교회 본부  
 • 문의 : ☎(02)292-7239

## 평화방송 TV 표어 공모

응모요령 : 우편엽서에 평화방송 TV 표어를 18자 이내로 적어 당사로 우송. 응모마감 : '94.4.23(당일자 소인까지 유효) 시상내용 : 당선작(1편) 상금 10만원 및 TV 1대, 입식작(2편) 상금 30만원 및 포터블CD플레이어 1대 당선작별표 : 5.15 평화신문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저동1가 2-3 평화방송 TV 표어공모 담당자 앞. 협찬 : (주)한국사포

부업·사업 희망 교우 환영  
**(주)웅진인삼 772지부**

장쾌삼골드(허약체질, 숙취, 피로), 웅진푸른(칼슘, 칡분합유, 천연과즙농축액, 비타민, 면비, 아기이유식), 타히보차, 로얄돈, 스쿠알렌

탁경희(율리안나)  
☎ 231-4662~3

우리온돌은 에너지 저금통  
**우리온돌 전북총판**

- 연료 50% 절약 24시간 끄끈뜨끈
- 각종 보일러 시공 상담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주임순(바울라)  
☎ 78-1363, 1431

듣고 말하는 산 영어학습지  
시사영어사 디즈니 영어박사  
**YBM 시사영어사 군산지사**

어린이 영어도 시사영어사입니다.  
**최강(스테파노)**  
교육상담 ☎ (0654) 445-0958  
445-0198~9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일생수**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채취하고 있는 천연 알칼리수  
**작은 예수회**  
☎ (0652)225-4678  
호출기 015-682-4678

뿌리를 찾아서 ⑭

## 신풍 성당

— 나눔의 친교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

신풍 본당은 요촌 성당의 교세 확장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을 이어갈 접목점인 신풍동 163-1의 부지에 1984년 12월 16일 성당과 사제관을 준공하여 본당으로 설정되었으며, 주보 성인으로는 성 조화서 베드로를 모시고 있다.

초대 장인찬(도미니꼬) 신부님을 모시고 신자들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목활동을 펴시며, 미비된 응벽공사, 포장공사, 담장 등 부대 시설을 노력봉사로 완성했으며, 그 해 5월 성모동산과 평화상도 건립했다.

1988년 2월 제 2 대 이성우(마티아)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고, 인근 주택을 매입 개수하여 사랑의 시튼수녀회 분원을 설립, 수녀님을 모시고 전교와 냉담자 회두에 전력하고 있으며 그 힘은 계속 이어져 제 3 대 성태수(이냐시오) 신부님을 모신 가운데 신자들의 재교육과 화합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 강당과 사랑방을 열었으며 각종 회합과 교리 및 성서교실을 본당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

분당 공동체는 성모 승천 꾸리아를 창단, 현재 19개 Pr.과 소년소녀 Pr. 사목회를 비롯 제단체들의 활동으로



본당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본당은 5개 공소의 신자수가 40%를 차지할 만큼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순박한 이들로서 이해와 사랑으로 결집되어 어떠한 어려운 행사라도 순조롭게 이루어내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며, 본당은 성서공부와 기도와 활동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여 생활하고 있다.

명상의 자리

## 사랑이신 주님

당신을 생각할 때 기쁨입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 사랑입니다.  
가만히 다가와서  
저의 온 존재를 기쁨으로  
멀게 하시는 당신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미리 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눈앞에 놓인  
달콤한 가짜 행복에 마음이 팔려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지만  
그래도  
밉다 하지 않으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감싸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한복 · 수의  
**현대 주단**

교우 여러분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조재기(토마스)  
신옥순(율리아)  
중앙상가 1층 163호  
☎ 254-4851

신부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 미용실**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웨딩ドレス 전문점  
**신부의집**

전주점 관통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미接触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화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 교구소식

##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때 : 4월10일(일)
-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 축 ! 견진

- 때 : 4월10일(일) 오전10시30분
- 곳 : 상삼례 성당

## ◆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 새내기 한미당
- 때 : 4월9~11일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집결지 : 4월9일(토) 오후1시  
가톨릭센타

##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4월10일(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타 1층 회의실

## ◆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때 : 4월4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타 3층 강당

## ◆ 교도소 부활미사

- 때 : 4월6일(수) 오후2시
- 후원회원과 함께

## ◆ 푸른군대 모임

- 때 : 4월7일(목) 오전10
- 곳 : 덕진 성당

## ◆ 교구청 휴무

- 때 : 4월4일(월) 부활절 관계로

## ◆ 제 1 기 레지오 간부교육

- 때 : 4월16일~5월7일  
매주 토요일 오후3~6시
- 곳 : 전동 성당 교육관
- 교육비 : 2만원(평의회에서 지출)
- 접수 : 레지아 사무실 83~5085

##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4월18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첫 그리스도인
- 내용 : 제 2의 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도 성바울로. 박해자였던 그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다. 그가 다녔던 선교여행지를 따라 순례함으로써 그의 깊은 영성과 하느님 사랑을 만날 수 있다.

### 성소모임

## ◆ 살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때 : 4월10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3)842-4132

##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4월10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84-2276

## ◆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 때 : 넷째주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타
- 문의 : (0652)78-0094

### ■ 권해드리는 책 ■

- 교리서 예수님이 사랑해요 - 어린이용 -  
심홍보 지음 / 1,500원 / 성바오로 출판사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서. 예수님이 맞이하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교리서 예수님이 사랑해요 - 교사용 -  
심홍보 지음 / 3,000원 / 성바오로 출판사

-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리교사들을 위해 마련된 교사용 어린이 교과서.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주님을 만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생명의 파수꾼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생활(生活)이라는 말은 바로 이 생명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듯한 풀과 나무와 꽃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가꾸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생명

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살인, 집단 학살, 낙태와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 고문 등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생명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힘쓴다면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훌륭한 '생명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 살레시오 중·고등부 여름신앙캠프

- 때 : 7월22일~8월14일
- 기간 : 2박3일(8차)
- 장소 : 전남영광군백수면모래미해변
- 회비 : 23,000원(숙식제공)
- 접수 : 4월30일까지  
☎ (062)512-0332, 524-1245~6

### 꽃동네 성소의 날 행사

- 때 : 4.24(일)  
오전 10시~오후 4시
-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꽃동네 음성 본원)
- 문의 : (0446) 78-9810~12

### 엄마사랑 서부점

이유식 · 당뇨식 · 건강식 42종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박종환(유스띠노)

이미언(마리아)

효자동 성당 앞

☎ 225-4350

### (주)영풍전자 호남총판장

기획 대폭 인하 판매

- VMP 5000, 6000, 7000, 8000 노래방 반주기 판매 · 스피커, 앰프 도 · 소매 · 노래방, 단란주점 인허가 및 인테리어 상담
- 이희봉(도마) 김명옥(안젤라)  
☎ (0653)855-7194 · 5,858-6216

### 결혼 예물 전문(금·은·보석·시계) 목주반지 제작 전문

### 고려보석

김형태(율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동 성당 사거리

☎ 82-9005

###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 늘푸른집

- 샐이랑 : 온몸, 샴푸, 키큰, 겸용
- 천연샘 : 부엌용(아기샘, 맑은샘)

전경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축! 예수 부활 대축일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소양 성당 전립을 위한 2차 현금)
- 1. 부활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시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성시간 : 7일 저녁미사 후. 3. 범자 봉성체 : 8일 사무실에 신청. 4. 사목회 상임일 : 8일 저녁미사 후. 5. 부녀회, 빙천시오회 소록도 방문 : 14일 7시출발, 회비 - 5,000원, 선착순. 6. 모임 : ① 성심회, 자모회(5일 어머니미사 후) ② 반회장(7일 전 10시30분) ③ 장우회(10일 장엄미사 후) ④ 울뜨레이(10일 장엄미사 후) 7. 사랑의 성금 : 2,290,000원. 8. 축! 흔인 : 신령-진령 사문, 신부-경기란, 10일 12시. 9. 금주 청소 : 중노4, 5반. 차주 청소 : 중노6, 8반.
- 지난주 봉헌금 : 1,039, 930원 □ 교무금 : 2,180,000원
- 2차 현금 : 464, 58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 1. 성체강복 : 7일 저녁미사 후.
- 2. 고3 학생 모임 : 9일 저녁미사 후.
- 3. 회합 : ① 대전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 ③ 구역분과회-5일 오전 10시 ④ 여성분과회-9일 오전 10시 ⑤ 요셉회-10일 공식미사 후 ⑥ 꾸리아-10일 오후 2시 ⑦ 청년회-10일 저녁미사 후 ⑧ 해설사 모임-10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725, 580원 □ 교무금 : 1,762, 300원

\* 삼천동 사제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김진룡  
사목회장

- 1. 축! 예수 부활 대축일 : 부활의 영광이 모든 교우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식미사 후에는 나눔의 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부활절 “화해의 성사”가 4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화, 목, 토 저녁미사 후). 3. 초등부 및 중·고등부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 교리교사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레지오 미리애 회합이 시작됩니다. : 시작은 부활절 다음 주간부터입니다.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뺨레시디움에서는 회합 날짜를 본당신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 회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교리시각 : 목, 저녁미사 후(8시) 시작날짜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6. 환자봉성체 : 사무실에 신청(4월 8일 후 1시부터 방문)
- 지난주 봉헌금 : 675, 940원 □ 교무금 : 1,467, 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경축! 예수 부활 : 주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2. 부활절 특별 감사헌금 : 정성껏 봉헌합시다.
- 3. 예수 부활 대축일 경축행사 : 공식미사 후. 주일학교 은총시장-어머니미사 후.
- 4. 모임 : ① 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 자모회-9일(토) 저녁
- 5. 금주 청소 : 신비로운 장미Pr
- 6. 제대꽃 봉헌 : 이석남, 강옥례-3만원. 진점순-2만원. 최영순, 안숙례-1만원 ※ 제대 마이크 기증-황상호.
- 7. 감사 : 부활절 행사에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 8. 사순절 성소후원저금통 봉헌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395, 240원 □ 교무금 : 398, 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주 예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시30분.
- 1. 꾸리아 : 4월 3일(오늘) 오후 2시. 2. 자모회 : 4월 6일(수) 오전 10시.
- 3.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 : 김병용 300만원, 억명 200만원, 박장춘, 박경복, 강석주, 이덕봉, 김호승 5명 각 100만원, 억명 2명 각 100만원. 황현규, 신용균, 권희조, 김수임, 윤순예, 이용우, 박병주, 김완기, 유지상, 소삼십, 송수종 11명 각 50만원, 송영이, 오동춘, 최성용 3명 각 30만원, 억명 30만원, 김명순, 박복규, 송정근, 손창진, 장호영, 김기례, 유휘선 7명 각 20만원. 유삼희, 이윤례, 남순이, 임복기, 최옥자, 확인안, 김창귀, 황순례 8명 각 10만원. 김행례, 최준숙, 전장순, 양남례 4명 5만원, 조수남 4만원, 윤순분 2만원
- ※ 성심회 250만원, 자모회 60만원, 죄인들의 피난처Pr 20만원, 13반, 우정반 10만원, 20반 5만원, 107세대 총신입액 : 78, 820, 000만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예수 부활 대축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 1. 오늘 공식미사 후 : 나눔 한마당-꼭 참여하여 사랑을 나눕시다.
- 2. 구역. 반장모임 : 4월 8일(금) 미사 후.

3. 사목회 : 4월 9일(토) 저녁 7시.

- 4. 다음주 공식미사 때 특강 : 범석규 신부님 강의
- 5. 다음주 공식미사 후 : 꾸리아.
- 6. 청소 봉사 : 1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638, 900원 □ 교무금 : 2,019, 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예수 부활 대축일.
- 1. 금주 : ① 성소후원의 회비 남부주일 ② 영세자 환영식(공식미사 후) ③ 재속 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 2. 빠에파회 : 6일(수) 오전 11시. 3. 성체강복 및 조배 : 7일(목) 오전 10시.
- 4. 성모성심회 : 7일 오후 3시. 5. 병자 봉성체 : 8일(금) 오후 2시.
- 6. 성지회 피정 : 9일-10일, 장소-수류성당.
- 7. 초등부 주일학교 은총시장 : 9일(토) 오후 4시~6시.
- 8. 차주 : ① 폐부 선교사를 위한 2차 현금 ② 자모회(전 10시) ③ 울뜨레이(공식미사 후) ④ 일치의 모임 꾸리아(후 2시) ⑤ 요셉회(후 6시) ⑥ 사목회(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 2,234, 0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삼근

- 결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총)
- 1. 부활절 기념 청소년 배구대회 및 일번 척사대회 : 오늘.
- 2. 사목회 성임위원회 : 7일 저녁 8시30분 “바자회 준비”
- 3. 건축위원회 회의 : 8일 저녁 8시 “토목공사와 부지 검토”
- 4. 어린이 은총시장 : 10일 학부모님들의 관심바랍니다.
- 5. 대학생 새내기 헌마당 : 9~10일 나바위, 회망자 회비-지원
- 6. 엠마우스 : 구내 가족 휴일-5일까지 수고에 감사합니다.
- 7. 구역 반회장 은수회 : 12일로 연기, 방문 원하는 구역 신청.
- 8. 회의 : 부녀회-6일, 제대회-8일 후 3시, 꾸리아-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 성체회, 청년성가대-다음주일.
- 9. 성미주머니와 사순절 데자저금통 사무실에 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975, 050원 □ 교무금 : 3,022, 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FAX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 오늘 독생성자 죽음을 이기시고,
-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 ◎
- 1. 오늘 : 꾸리아-낮미사 후. 사목회-오후 8시30분.
- 2. 새벽미사를 오전 6시로 옮깁니다.
- 3. 기죽미사 : 7일(목)-평화.
- 4. 전례자회 : 7일(목) 오후 8시.
- 5. 다음주 : 성모회, 안나회-낮미사 후.
- 6. 예비자 입교식 : 다음주일 낮미사에 있습니다.
- 금주 전례 : 김희숙, 강희연, 독서·봉헌-화산2(B)  
차주 전례 : 최정순, 정준성, 독서·봉헌-평화주택

□ 지난주 봉헌금 : 704, 220원 □ 교무금 : 1,765, 000원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송영진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섭

- 축! 축! 축! 예수 부활
-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 부활로 새로 태어나는 삶을 축하드립니다)
- 1. 흰자 봉성체 : 4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 2. 구역 봉사자 모임 : 4월 6일(수) 오전 10시30분.
- 3. 인나회 : 4월 10일(일) 11시 미사 후(교육관)
- 4. 울뜨레이 : 4월 10일(일) 저녁미사 후 교육관.
- 5. 성모회 : 4월 13일(수) 오전 11시.

\* 다음주(4월 10일) 폐부 선교사를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426, 000원 □ 교무금 : 3,540, 000원

\* 효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의도

- 1. 오늘 공식미사 후 전신자 단합을 위한 유료 나눔의 찬치가 있습니다.
- 2. 성소(신학생) 후원회 가입과 회비를 접수합니다.
- 3. 모임 인내 : ① 빙천시오회-6일(수) 오전 9시30분 ② 여성분과-8일(금) 10시 미사 후 4. 성체강복 : 7일(목) 10시 미사 후. 5. 봉성체 : 7일(목) 오후 2시,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축! 흔인성사 : 신랑-백지현(시몬), 신부-이미희(에피파니아) 10일 12시30분, 신축헌금 봉헌액 : 1,080, 000원 차주 모임 : 기우회, 울뜨레이 단합 피정-10일 오전 7시30분 단양, 금주 전례 : 해설-임창수, 독서① 김상권 ② 이병희, 봉헌-전형섭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이인숙, 독서① 오기현 ② 봉예화, 봉헌-안길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537, 650원 □ 교무금 : 5,641, 000원

□ 2차 현금 : 762, 810원